

제 2 회 대 한 민 국 성 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KRS0432

한글 성명: 윤옥란

					부	모	님	의		청	춘									
		춘	글	제	글			보	자	마	자		나	는		청	춘	이	라	는
단	어	가		떠	올	랐	고		지	금		한	창		청	춘	인		나	
자	신	보	다		부	모	님	이		먼	저		떠	올	랐	다				
		방	학		때		집	에	서		있	었	던		일	이		생	각	냈
다		텔	레	비	전	을		함	께		보	는	데		아	버	지	께	서	
는		잘		보	이	지		않	는	다	면	서		돋	보	기	를		쓰	
셨	고		어	머	니	는		거	북	을		보	시	더	니		환	머	리	
카	각	이		많	다	고		한	참		한	탄	하	셨	다		'나	이	를	
먹	긴		먹	었	나	보	네	,	환	머	리	카	각	이		이	렇게			
많	이		자	란	걸	보	니	'	엄	마	,	엄	마	가		뭘		늑	긴	,
너	기		앉	아	봐	,	너	가	뺨	아		죽	게	'	그	리	고			
엄	마	는		나	의		무	릎	에		누	우	셨	다	,	검	은	:	머	
리	카	각		밑	에		환	머	리	카	각	이		가	득		했	다		
나	는		깜	짝		눈	났	다	,	또		다	시		어	머	니	의		
얼	굴	을		보	니		없	었	던		죽	름	들	이		이	바	와		
눈	가	미		잡	혔	다	,	뽕	에		앉	으	셔	서		텔	레	비	전	
은		보	시	는		아	버	지	도		예	전	에	는		안	경	을		
쓰	시	지		않	았	는	데		지	금	은		돋	보	기	를		쓰	시	
고		이	바	미		죽	름	이		잡	혀		있	었	다		아	버	지	

제 2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KRS0432

한글 성명: 윤옥란

와 어머니를 이렇게 뻔히 본 게 몇 년 전
 인가... 대학교에 가고 ^반서 는 방학을 빼고
 집에 간 적이 없었다. 집에 가더라도
 늦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은
 이미 출근하셔서 ^{자음 생각하면}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
 나누지 오래다. ^{자음 생각하면}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
 부모님들도 자신의 삶이 있었고 꿈이
 있었다. 부모님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
 자신의 청춘을 불태웠고 자신을 위한
 시간을 가졌으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
 모든 것을 우리 위주로 우리가 그들의
 제 1 순위였다. ^관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는
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인 ^{자음} 줄로 받아
 들였고 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
 했다...
 때, 무릎에 ^{자음} 누워 자는 ^{어머니를} 보면서 나는
 부모님을 관심 하지 않은 내 자신이 미
 웠 ^{자음}다. '엄마, 나 정말 용설마가 염색하는
 게 어때?' 엄마는 '그래 좋아'하고 말씀
 하시면서 환히 웃으셨다. 그런데 어머니

제 2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KRS 0432

한글 성명: 윤옥란

의 웃음은 보편서 나는 왜 그렇게 행
복하지 않았나. 지금의 우리는 성인이
되었으나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영원한
아이이다. 우리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
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, 우
리는 마치 하늘에 나는 연처럼 멀리
높고 멀리 멀리 날더라도 항상 부모님
의 걱정이다.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
받친 부모님께 항상 고마움의 마음을
가져야 한다. 비록 부모님 곁에 있지
않더라도 집에 전화해 안부를 묻고 같
이 대화도 하고 애교도 부리면서 부모
님의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. 그리고 학
과에서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
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
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아버지, 어머니 역할로 부모님을 마주
했던 우리는 부모님의 청춘을 떠올리기
란 쉽지 않다.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
청춘을 바친 결과물로서 항상 부모님께

제 2 회 대 한 민 국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KRS 0432 한글 성명: 윤옥란

한글 성명: 윤옥란

[illegible]